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hibi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Using Storytelling

이 재 나 (Jae-Na Lee)**

유 현 경 (Hyeon-Gyeong Yoo)***

김 건 (Geon Kim)****

목 차

1. 서론	3.1 국내 운영현황
1.1 연구의 필요성	3.2 국외 운영현황
1.2 연구목적 및 방법	3.3 운영현황 분석
1.3 선행연구	4.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2. 이론적 배경	4.1 전시프로그램 개발 시 전제사항
2.1 스토리텔링 전시	4.2 전시프로그램 모델 제안
2.2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사례 분석	4.3 적용 전시프로그램 세부내용
3. 대통령기록관 전시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분석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 및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록관의 현 과제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유·활용·확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천착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 수집정책이나 전시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대통령기록관, 전시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전시, 기록물 전시

<ABSTRACT>

The Presidential Archives collects and manages both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historical archives related to the president which it subsequent provides to the people. Regardless of these special duties that meet the people's right to know, its awareness and study on the Presidential Archives has not been thoroughly satisfied. It is time to focus on providing service to share and utilize records and archives, as well a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exhibition methods through storytelling, which is well-known, as it pursu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various services for a more efficient usage and promo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This helps raise awareness about the Presidential Archives, attract group visits of children, and provides a good example for collecting archives and planing exhibitions.

Keywords: president archives, exhibition program, storytelling, records exhibition

* 본 논문은 2014년 제 5회 대통령기록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moonna@jbnu.ac.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hgyoo@jbn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이카이빙연구소 연구원(godardkim@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7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5년 8월 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3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87-114,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3.08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기록관(Archive)은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설립되며, 특히 기록의 무결성 보존은 기록관의 핵심적인 역할로 여겨졌다. 민주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기록 보존과 관리의 사회적 가치는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 기록 이용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보존과 관리에 초점을 맞춰오던 기록관의 패러다임은 오늘날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록관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유사기관에 비하여 인지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기록관이라는 단어부터 대중에게 생소하고, 또한 기록관 내에서도 여전히 기록물 보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활용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감성과 체험을 강조하는 롤프 옌센(Rolf Jensen)의 주장처럼(2000), 기록관의 현 과제는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유·활용·확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록 및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관련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는 기록관의 홍보에 대하여 “기록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특히, 혜택 받지 못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 요구에 맞추어 제공하며 전시프로그램, 출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한다(김연주, 2009). 이 중 전시프로그램은 기관의 존재 여부와 사명,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김진숙, 2007),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가 기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서, 관련 연구들이 대통령기록관의 활용방법을 다양하게 논의되고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제안방식은 출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역사와 정책 자료의 기록물이 나열된 전시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아동 등의 이용자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2014년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표 1>처럼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유치부와 초등학생은 아동발달학자들이 설명하는 아동기(6세~12세)에 해당하며, 아동들은 관심이 가지 않는 전시의 경우 관람을 포기하거나 일회성 교육적 특성을 보인다(김용승, 고유정, 2009). 또한 기록관을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외에 일반 이용자들 역시 역사와 정책 자료의 기록물 전시에 일차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기록관 활용방식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용자 대상의 맞춤형 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을 보

〈표 1〉 대통령기록관 방문 이용자(2008-2013)

구분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공무원	외국인	합계(명)
08년	745	340	55	25	299	3,160	54	150	4,828
09년	1,003	2,782	447	206	521	1,901	479	181	7,520
10년	2,869	2,315	613	225	686	1,245	817	302	9,072
11년	2,951	3,021	217	62	745	2,133	1,236	180	10,545
12년	3,719	3,440	312	200	631	3,050	577	168	12,097
13년	2,627	2,738	491	590	750	4,880	972	129	13,177
합계	13,914	14,636	2,135	1,308	3,632	16,369	4,135	1,110	57,239

* 출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통계수치(대통령기록관, 2014)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천착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 수집 정책이나 전시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종시 이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최근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인지도 상승 및 홍보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김연희, 2012; 양유정, 2006).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객관적인 기록물의 나열에서 그치는 일차원적인 전시에서 벗어나 기록물의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맥락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기관을 찾는 이용자 방문을 증가

시키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양질의 전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체험전시는 유아부나 초등학생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시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를 아동에 초점을 두고, 스토리텔링 전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야기'를 '대통령의 하루'로 설정하며, 비서관의 시점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스토리텔링 전시는 아동들의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 단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에 사용되는 21세기 디지털 기술과 시각·청각 등을 자극하는 기록물 체험요소는 관람객의 높은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른 문헌조사와 타 기관의 스토리텔링 전시 사례를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적용 가능한 제반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기존에 진행된 상설전시와 기

획전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전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대통령의 하루'로 스토리텔링하여 전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전시 프로그램은 각 전시 소주제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기존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거나 창작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아동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시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연구로는 대통령기록관 전시와 스토리텔링 전시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연주(2012)는 국가기록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건국 60주년 기념 전시를 비교하여 뚜렷한 목표 고객 설정, 주제형 전시 지향, 관람객의 피드백 반영, 생활·문화사 관련 자료 제시 등의 기록관 전시의 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한다. 이숙경(2007)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통령 재직 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 대통령의 주요 정책,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대통령의 물품, 대통령 생가나 청와대 등의 모형, 문화일반 등이 전시 프로그램 주제로 적합함을 설명하며, 전시·교육·홍보 프로그램 중심의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시 배치에서부터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전시 기법에 대한 언급은 다소 미흡하다. 이선정(2007)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의 전시프로그램 유무의 분석을 토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홍보 전략을 제안한다. 이혜원(2007)은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고 전시를 기획·진행·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며, 전시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조민지(2006)는 미국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행정 편의보다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스토리텔링 전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연희(2012)는 박물관에서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기법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전시 구조와 특성, 기대효과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진수정(2011)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대학기록관의 전시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제주 4.3 기념관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전시'를 위한 전시 방향을 제안한다. 김영도와 한태우(2009)는 스토리텔링 개념과 전시 연출의 융합 접점을 분석하고 스토리텔링 전시 연출 사례를 제시하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전시연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한다.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통령기록관 전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규명하는 연구 또는 새로운 전시방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론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시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전시프로그램의 대안 및 확대방안으로 '대통령 일과'라는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토리텔링 전시

일반적으로, 전시는 전시하려고 하는 대상인 전시물(object)을 진열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전시물에 담긴 내용을 관람하는 대상인 관람객이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의 전시는 예전의 관리자 중심의 단순한 나열식 진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며,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주형, 2001), 즉 이용자 중심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측면에서 현대의 전시 연출자는 이용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시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체험적 요소를 전시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전시에서 가장 각광받는 방식이 바로 이용자 중심의 스토리텔링 전시 연출이다. 이러한 연출방식은 체험 전시에 스토리 방식을 더함으로써 전시 내용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고, 다양한 매체 도입으로 현실감과 몰입감이 향상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적·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나희, 2008).

스토리텔링은 story(이야기)와 telling(말하기)의 합성어로, 이야기와 구술적 속성인 말하다(tell), 상호작용으로서의 현재성(-ing)의 특성을 함께 지닌 개념이다(김연희, 2012). 생생한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문학적 성향의 기법인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적 영역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표층적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인 전시와 그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나, 현대적 의미의 확대된 전시 연출의 범주에서 살펴보면 맥락상 유사한 연결의 동위소를 찾을 수 있다(김영도, 한태우, 2009).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는 이야기와 이야기 하는 사람(화자)과 듣는 사람(청자)으로 이뤄지고, 형식적으로는 인물과 사건, 배경이라는 3요소를 갖추며 ‘시작, 중간, 끝’ 또는 ‘기, 승, 전, 결’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특정 내용을 기술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에 따라,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전시 기획자, 이야기 듣는 사람은 관람객, 이야기는 전시물로 구성된다. 즉, 기획자는 관람객에게



<그림 1> 전시와 스토리텔링의 상관성(김연희, 2012)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스토리텔링 전시는 전시 주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러(storyteller)를 통해 경험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순 정보 전달과 구별된다. 그리고 스토리텔러는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2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전시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유·아동을 위한 눈높이 전시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과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2.2.1 국립민속어린이박물관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014년 4월 23일 시작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는 관람객이 무려 1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었고, 지금도 상설 전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 순서에 따라 전시 동선이 기획되어 있으며, 소주제 코너에서는 전래동화와 관련된 풍부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 운영된 ‘흥부 이야기 속으로’, ‘심청 이야기’ 등과 현재 진행 중인 ‘똥 나와라 똥똥’ 등의 특별전시도 스토리텔링 요소를 기반으로 전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전시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5개의 대주제로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만 5세-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임을 감안하여 촉각, 시각, 후각 등의 체험 요소를 번번이 사용하고, 특히 ‘이야기 알기-속으로-하기-나누기-놀이터’로 전시를 기획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가 재현된 전시관에서 구현 매체를 통해 직접 이야기의

<표 2> 국립민속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구성

전시 구성	스토리	전시 내용	체험 요소	구현 매체
이야기 알기	도입부	‘이야기 극장’을 통한 해와 달의 의미 고찰	영상 애니메이션	LCD, VCR
이야기 속으로	중간부	‘숲에서 들리는 소리’, ‘숲의 향기’ 등의 이용자 참여 유도	청각·후각·촉각 체험	모형, 오디오 음향
이야기 하기		‘호랑이와 게임 한판’, ‘십이지 띠 맞춰 보기’ 등의 호랑이 관련 유물 및 ‘내가 그리는 오누이’의 다양한 체험 제공	영상 애니메이션, 스크린 터치 게임, 신체 활동 등	LCD, VCR, 디지털스크린, 민속 박물관, 모형
이야기 나누기		‘해가 되고 싶은 사람?’, ‘달이 되고 싶은 사람?’ 등의 체험 활동을 통한 해와 달과 관련된 과학 지식 학습	전시장 꾸미기, 빛 만들기, 역할 놀이 체험	모형, 스크린
오누이 놀이터	결말부	이야기 할머니의 구연동화 감상	동이줄 만들기의 놀이 체험	모형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전시 관람 안내서를 통해 보호자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린이가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다.

2.2.2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박물관

홀로코스트박물관의 상설 전시의 주제는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역사적 사건이다. 박물관의 공간은 총 3층으로, 관람객에게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ID카드’를 발급받고 맨 위층부터 전시를 관람한다.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주제는 ‘나치 총공습-1933~1939’로, 나치당의 권력이 급부상하던 1933년부터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체계적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과정과 기타 당대의 사건을 전시하고 있다. 다음 층은 ‘최종의 해결책-1940-1945’로, 전쟁 기간에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정책이 게토에서 가스방, 총살 등의 대학살로 바뀌게 된 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층인 ‘마지막 장’은 나치 캠프의 자유화와 연합군의 승리, 구조와 저항의 노력, 홀로코스트 그 이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주제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전시스토리에 맞춘 주제별 구성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나희, 2008).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전시를 위해 실제 유대인 아이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한 ‘아이들을 기억하다: 다니엘 이야기’는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전시의 스토리는 다니엘이라는 스토리텔러를 두어 어린아이가 쓴 일기를 통해 챗터마다 연결된다. 전시 도입부에서 등장하는 다니엘 스스로의 이야기 영상은 어린이들로 하

여금 홀로코스트의 전과 후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흥미를 잃지 않도록 책상, 옷장, 유리창 등에 적용된 체험요소는 몰입의 단계를 높인다. 또한 전시의 에필로그에는 우편함을 설치하여 편지 쓰기를 통한 스토리텔러와의 교감을 유도한다. 김나희의 견해에 따르면(2008), 어린이들에게 홀로코스트의 실제사건의 잔인함을 완화하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을 공포와 무력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발달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3. 대통령기록관 전시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분석

3.1 국내 운영현황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구분된다. 현재 상설전시는 ‘기록! 대통령을 만나다’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약 390m² 규모의 상설전시관에서 총 6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는 대통령기록관 상설전시관의 전체 모습이다.



<그림 2> 대통령기록관 상설전시관 전체 모습(대통령기록관, 2014)

제1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에는 대통령의 취임 영상 10편과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100여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제2관 ‘역대 대통령 연보’에는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내용으로 하며, 대통령 연표 1점, 대통령 업적에 한글과 초상화를 각 1점씩 총 10점과 청와대 변천 사진 4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3관 ‘대통령의 국정기록’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과 국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정부조직을 구성하다’, ‘회의를 주재하다’, ‘법률을 공포하다’, ‘중요정책을 결정하다’, ‘국가를 보위하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다’ 등을 업무별로 나누어, 관련 동영상 이 1편, 문서는 2건에서 6건 정도 전시되어 있

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생각 읽기’ 섹션에서는 문서 13건, ‘대통령의 편지’, ‘대통령 주요기록물’, ‘대통령 국정기록’은 각각 동영상 1편씩으로 소개된다. 제4관 ‘대통령이 되어보다’에는 청와대 실제 집무 책상을 재현해 체험을 유도하며, 역대 대통령 영부인 사진 10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5관 ‘대통령기록관 홍보영상’에는 기록관 홍보영상 1편과 기록관 기능을 제시한 패널이 벽 2곳에 붙어있으며, 벽 1곳에는 대통령제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관 ‘세계 정상들의 선물’에는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34세트 100여 점의 선물이 대륙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살펴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기획전시의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

전시명	전시 내용	세부 전시	전시 내용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박정희 前 대통령의 기증기록물	도입부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시 소개 글 및 영상
		선물관	유럽/중동,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시아, 국내 선물 전시
		유품관	박 前 대통령 내외가 사용한 의자, 거울, 소파 등 각종 유품
		영상관	박정희 前 대통령 관련 영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전 (더 큰 대한민국, G20 KOREA)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사	도입부	계단을 이용한 역대 대통령 업적 소개, 대통령 정상외교 기록전 소개 글
		대통령별 정상외교 기록전	대통령별 정상외교 연표,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등
		G20 선물존	유리그릇세트, 전통 탈, 코냑, 버루, 도자기인형, 칼 등 선물
기록! 대통령을 만나다	대통령의 취임, 국민들과 주고받은 편지, 친필 휘호 등 대통령 관련 기록물	대통령 취임	1-16대 대통령 취임 영상 통해 역대 대통령의 정치철학, 대통령으로서 각오 등 소개
		대통령과 영부인의 초상	1-16대 대통령 유화, 문서, 편지 및 홍보영상, 영부인 사진
		대통령기록관 영상	대통령기록관 홍보영상, 대통령 홍보 패널 1, 2, 3
		대통령의 휘호	역대 대통령 친필 휘호
		체험코너	대통령 친필 휘호 탁본 및 스탬프, 사진피즐 맞추기 등
아름다운 동반자, 영부인	역대 대통령 영부인의 대내외 활동 및 대통령과 일상모습 기록물	도입부	영부인 사진 연출
		대한민국의 어머니, 영부인	민생현장의 의견을 전하며 봉사활동 참여 관련 기록,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행사 참여, 외교사절 수행 관련 기록
		대통령의 동반자, 영부인	한 가정의 아내·어머니로서의 삶 관련 기록, 대통령 내외로 산책, 독서 등의 휴식, 취미활동 관련 기록
		행정박물 및 선물	영부인 사용한 행정박물, 일상 사진, 활동 영상, 은행반, 찻잔세트 등 선물

3.2 국외 운영현황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각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다음의 대통령기록관은 전시를 목적으로 방문한 이용자의 수가 한 해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사례이다.¹⁾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은 대공황의 시기부터 뉴딜정책, 세계 2차 대전까지 루즈벨트의 재임시기의 이야기에 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2015). 특히 인터랙티브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몰입효과를 유도하는 오디오-비디오 극장과 극히 보기 힘든 행정박물들을 중심으로 루즈벨트 시대의 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상설전시관 전체에 걸쳐 터치스크린을 포함하여 많은 인터랙티브 요소가 곳곳에 있다. 방문객들에게 문서, 사진, 역사가의 해설을 포함하는 디지털 플립북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전시 너머에(behind the scenes)'는 상설 전시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박물들을 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관은 영부인과 대통령의 컬렉션을 큰 유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획전시로는 각국 정부, 기관, 개인이 루즈벨트에게 준 100여 가지의 선물을 전시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의 전시프로그램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주제와 소재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조민지, 2006). 상설전시로는 케네디 대통령의 업적, 그가 직면한 도전과제, 그가 내린 결정들, 필름, 영상, 오디오 기록물에 남겨진 그의 발언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주요 주제로는 쿠바 미사일 위기, 평화단체, 우주 계획 등을 포함한다.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와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어머니 로즈 케네디에 관한 전시도 시행된 바 있다. 기록물들은 의상, 그의 본래 전화기, 벽에 걸린 그림들, 펜, 배지 등 행정박물과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한다(케네디 대통령기록관, 2015).

포드 대통령기록관(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의 상설전시의 첫 관에서는 1970년대의 플랫폼 슈즈, 타이거 염색된 의류, 벨이 아래 붙여진 청바지, MIA 팔찌 등과 함께 팝문화의 부흥기의 음성, 광경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단편 동영상, 백악관의 집무실 및 헬리콥터와 베트남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의 위에 있었던 실제 계단 등을 재현하였으며, 대통령 시기 집무실을 인터랙티브 기법을 활용하여 복원하였다. 이용자들은 테이블에 앉아 뉴욕시의 재정적 위기 등 닉슨 재임기의 주요 주제에 관한 영상들을 관람할 수 있다(포드 대통령기록관, 2015).

레이건 대통령기록관(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에서 이용자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백 가지의 행정박물

1) 2013년 각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 방문자 수는 다음과 같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123,087명,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254,622명, 포드 대통령기록관: 320,930명,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426,344명, 카터 대통령기록관: 53,048명(NARA, 2013).

을 관람할 수 있다. 18개의 새로운 주제가 있으며, 애국적 영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세계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경제적 기회 제공에 대한 그의 노력 등을 18개의 주제를 인터랙티브 기법을 통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박물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레이진 대통령기록관, 2015). 기획전시로는 풋볼에 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풋볼에 관한 행정박물들을 전시하여 전 연령층의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의도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카터 대통령의 기록관(Jimmy Carter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은 연간 이용자가 약 5만 명을 웃도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상설 전시는 키오스크·터치스크린, 영상·음향 장치를 토대로 카터 대통령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조명하며, 대통령 퇴임 후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는 카터 대통령의 모습 또한 전시하고 있다(카터 대통령기록관, 2015).

3.3 운영현황 분석

현재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첫째, 단순나열식(display)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관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동영상 10편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며, 사진은 어떤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제4관의 대통령 영부인 사진 10점의 경우도 각 영부인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보는 순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전시에 활용된 기록물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제3관 국정기록은 각 업무에 대한 동영상 1편과 단순 민원에 대해 대상과 주고받은 대통령의 서한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정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이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9,688,049건인데 비해 전시에 활용된 것은 불과 250여 건으로 전시된 양 또한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소장 현황과 전시된 기록물을 비교한 것이다.

셋째, 상설 전시와 기획전시의 구분이 모호하다. 기획전시는 상시적으로 전시될 수 없는

<표 4>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소장 현황과 전시 기록물 비교

분 류	소장 현황	전시 기록물
종이문서	1,378,290	62
동영상	2,354,644	24
사진		115
글(표 포함)		25
행정박물(선물 포함)	17,666	34
행정정보	3,987,539	X
웹 기록	10,591,470	X
간행물, 도서 등	35,429	X
총	19,688,049(건)	260(가공품 제외 약 250)건

문서나 행정박물 등을 통해 색다른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불러일으켜 관람객 유치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6년 동안 단 4번의 기획전시를 진행했으며, 그 중 하나의 기획전시를 상설전시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외 대통령기록관은 국내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각 대통령 별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보다 다양하고 집중된 주제로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록관의 특성상 행정 기록물이 이용자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 선물 및 대통령과 관련한 박물, 대통령의 개인 기록, 풋볼 등의 대통령의 삶과 관련된 사이드 주제, 또는 영부인과의 사적인 편지 등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다. 이는 행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에서 보이는 대통령이 라는 직함의 엄숙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대로 기록물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를 목표로 한다. 인터랙티브 전시기법을 통하여 주입식 전시가 아닌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기존의 단순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상시적으로 전시될 수 없는 독특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 기록물을 재가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람객이 그냥 지나치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행정부 지도자이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적절한 위치에 기록물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3D, 모션 인식 등의 21세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촉각·청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기록물을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대통령기록관을 다녀간 후에도 긴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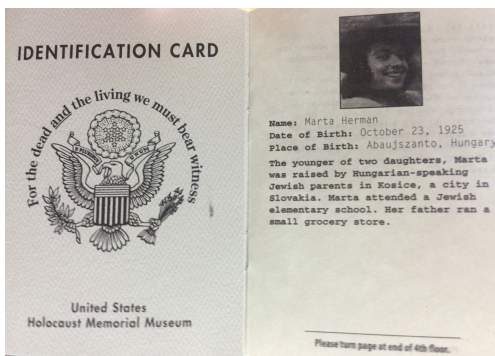
4.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4.1 전시프로그램 개발 시 전제사항

3장에서 살펴본 논점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시의 주제 즉, 스토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 관람객의 관심을 고려한다. 전시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록관 및 소장 기록물의 홍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개발의 주체인 기록관 관점의 프로그램이 아닌 관람의 주체가 되는 관람객이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자주 찾는 기록물을 분석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기록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설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스토리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재방문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방문객이 유치부와 초등학교생인 것을 감안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고려하고 난이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시의 경우 지나치거나 일시적인 관람을 하여 상호교류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의 흥미에 맞는

전시를 구상하여야 한다.

둘째, 전체 대통령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여 스토리에 맞는 전시 기록물을 설정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활동 전반에서 파생되는 기록물이며, 행정부 최고지휘자로서의 업무 활동에 따른 행정 문서 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영상, 행정박물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를 개발할 때는 스토리텔링 전시 요소와 동시에 자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특징도 숙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외교·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기록물의 비중이 높아 이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한다. 또한 기록 보존을 위해 원본을 전시할 수 없을 경우 '복제본'을 활용하고,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박물의 활용과 콘텐츠의 재가공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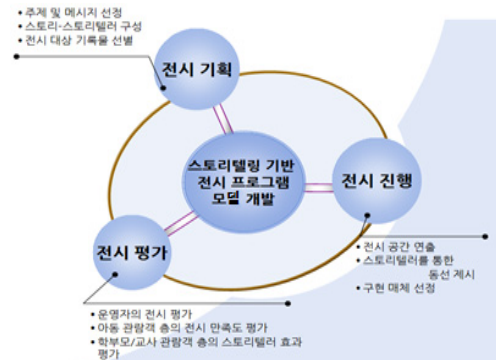
〈그림 3〉 홀로코스트 박물관 ID카드

셋째, 스토리텔링 전시의 몰입을 위한 의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관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도적 장치로써 〈그림 3〉처럼 'ID카드'를 사용하고 있

다. 희생자들의 신상명세가 적혀있는 ID카드는 재가공된 기록으로 마치 스스로를 홀로코스트 희생자라고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진수정, 2011), 대통령기록관 전시에도 몰입을 위한 소품 활용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광받고 있는 21세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촉각·청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기록물을 체험하여 교육과 오락의 접목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기능을 통해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동시에 줄 수 있어야 한다(김나희, 2008). 따라서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인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블루스크린 등을 고려하여 각 주제에 맞게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4.2 전시프로그램 모델 제안

이혜원(2007)의 연구에 따라 전시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 진행 단계, 평가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진수정(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의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모델을 〈그림 4〉와 같이 설정한다.



〈그림 4〉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모델 개발

4.2.1 전시 기획 단계

하나의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와 교육 메시지를 선정해야 한다. 전시 기획 단계는 ‘어떤’ 주제로 이용자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로, 기록관의 존재 이유와 사명 등을 담은 주제, 기록관의 소장 기록물에 관한 주제, 각 대통령들의 시대 상황을 담은 주제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관의 경우 주 이용자층인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는 지양해야 하며 전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제와 메시지가 정해지면, 전체적인 전시 스토리를 구상한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주요 사건은 ‘기-승-전-결’ 또는 ‘도입부-중간부-결말부’의 이야기를 담으며, 이들 이야기는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스토리텔러에 의해 구체화된다. 스토리텔러는 이용자들이 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이자 상호작용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토리텔러는 전시의 도입 단계에서 전시 관람의 동기 유발 기능부터 마무리 단계의 평가 기능 등을 담당하여 관람객인 아동을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하고, 전시 주제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던지며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역할놀이는 전시의 향상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토리텔러는 전시를 기획한 아키비스트가 담당하거나 전시 개막 전 아키비스트로부터 전시 기록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은 관내 직원이 담당할 수 있으며, 오디오나 비디오를 통해 가상의 스토리텔러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 스토리텔러를 선정 후에 소주제를 통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설정한다.

주제 및 스토리-스토리텔러 선정 후에는 스토리에 적합한 기록물을 선별한다. 기록이 속해 있는 기록물 그룹 모두를 전시하기보다 필요한 기록물만을 전시하도록 하며 기록의 유기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 기록물을 선별해야 한다. 맥락상 중요한 기록이 있을 경우 스토리를 추가하여 전시를 기획하거나, 스토리 전개를 위해 필요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시 기획 단계는 <표 5>로 설명 가능하며, 적용 사례는 <표 6>과 같다.

4.2.2 전시 진행 단계

전시 진행 단계는 전시의 공간적 연출과 전

<표 5>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기획 단계

전시 기획	주제	- 전체 전시의 중심이 되는 주된 제목 - 기록관의 존재 이유·사명, 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관련된 주제 설정 - 주 이용자층을 위한 맞춤형 주제 선정
	부제	- 주제 외에 전시에 대한 부제목이 존재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메시지	- 전시 주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메시지 선정
	스토리	- ‘기-승-전-결’ 또는 ‘도입부-중간부-결말부’에 따라 이야기 창작 - 추상적인 지식보다 구체적 사실·사건을 토대로 이야기 구성
	스토리텔러	- 아키비스트 또는 기록관 전시 담당 직원 또는 오디오·비디오의 가상 스토리텔러 선정
	기록물 선별	- 스토리 전개에 필수적인 기록 선별 - 필요에 따라 기록 재가공 및 창작 여부 결정

〈표 6〉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기획 단계 적용 사례

전시 기획	주제	- 대통령의 하루	
	부제	- 비서관 이야기	
	메시지	- 행정부 최고지휘자인 대통령의 역할과 업무를 전시로 구성하여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기관에 대한 친밀도 형성	
	스토리	- 대통령을 업무 보좌하는 비서관의 눈으로 대통령의 하루를 조명한다. 24시간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며 대통령은 어디서 자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시된 기록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도입부	- 전시 시작 - 이용자와 스토리텔러와 만남
		중간부	- 아침, 점심, 저녁의 하루 일과 전개 - 대통령의 업무와 정상회의, 기자회견 등의 소주제
	결말부	- 전시 마무리 - 대통령의 하루를 돌아본 후 피드백	
스토리텔러	- 비서관이라는 가상의 인물 구현		
기록물 선별	-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 - 대통령의 행정박물(식기류, 서적, 옷, 지문결재기...) - 부처별 주요 업무 보고서 - 사진기록(정상 회의, 사회봉사 관련) - 개인기록(가족 관련) 등		

시 동선, 기록물 전시에 필요한 구현 매체를 선정하여 기획한 전시 프로그램을 실현화하는 단계이다.

전시 공간을 연출 할 때에는 기관의 전시실 크기에 맞는 공간 배열과 적절한 조명 등의 전시 디자인을 염두에 뒤탈다. 또한 아동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를 위해서 재현 시설과 실연 시설을 갖춘다. 재현이란 영화 세트장과 같이 이야기 현장을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실연은 전시물이 동작하거나 음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흥미를 갖게 한다. 이러한 재현과 실연 시설을 통해 연출된 기록물의 전시는 이용자로 하여금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요소를 제공한다. 전시를 구현하는 매체는 기록물의 원본이나 복사본, 창작 및 재현된 기록물 등의 종이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박물, 그리고 기록을 재구성한 디지

털 기기(digital device)를 포함한다. 원본을 전시하는 경우 전시실의 습도와 조도 등의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경우에도 수시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전시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이 배열되는 순차적(Sequential) 구조로 동선이 짜인다. 그러나 순차적 구조로 전시 동선을 구성하였더라도 관람객의 동선은 전시 기획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스토리텔러의 존재는 스토리텔링 전시의 동선 유도에 더욱 효과적이다. 스토리텔러와 함께 지정된 관람 동선을 따르면서 이용자는 전시에 담긴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전시 진행 단계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적용 사례는 〈표 8〉과 같다.

〈표 7〉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진행 단계

전시 진행	전시 장소	- 전시를 진행할 기록관의 전시실이나 특별 장소
	전시 동선	- 순차적 구조 지향 - 순차적 구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스토리텔러를 통한 동선 유도
	전시 시설	- 이야기 주제에 따른 중점 장소 재현 - 이야기 구현에 필요한 오디오·영상 시설 실연
	구현 매체	- 전시 기획단계에서 선별된 기록의 원본·재가공된 기록의 배치 - 종이 기록, 박물관, VCR·LCD 등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전시 진행

〈표 8〉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진행 단계 적용 사례

전시 진행	전시 장소	-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
	전시 동선	- 순차적 구조
	전시 시설	- 대통령 관저·집무실·기자회견장 등의 재현 - 오디오·영상을 통한 비서관 모습 실연
	구현 매체	- 일정표·보고서 등의 종이 기록, 행정 박물관의 물리적 매체,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

4.2.3 전시 평가 단계

전시의 평가는 전시를 기획한 운영자의 평가와 이용자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운영자의 전시 평가는 전시를 기획한 아키비스트 및 전시 담당자가 대상이며, 전시 진행 과정의 단계에서 각각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시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현실의 스토리텔러가 존재할 경우 주기적으로 전시 개선 방안을 건의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 평가는 어린이 이용자와 아동 보호자 및 일반 이용자의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보통의 이용자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아동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만족스러운 피드백(feedback)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전시 만족도를 조사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전시를 평가하도록 한다.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들에게 스티커를 나누어주고 전시에

서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 및 매체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거나, 스토리텔러에게 오늘의 전시 소감에 대해 고마움의 편지 쓰기 등 아동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동 보호자 및 일반 이용자의 전시 평가는 스토리텔링 전시의 만족도와 함께 스토리텔러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러의 존재가 기록물 전시 관람과 기록 맥락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 전시의 유용성을 검증받는 작업이다. 박물관에서의 도슨트와 달리 가상의 스토리텔러를 통해 전시 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향후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스토리와 스토리텔러의 캐릭터 설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 평가 단계의 과정은 〈표 9〉에서, 적용 사례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평가 단계

전시 평가	운영자	- 전시 기획, 전시 진행, 전시 평가 별 설문조사 실시
	이용자	-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시행 - 아동층의 경우, 눈높이에 맞는 평가 방안 개발

〈표 10〉 스토리텔링 기반 전시프로그램 전시 평가 단계 적용 사례

전시 평가	운영자	- 전시 단계별 설문조사 실시
	이용자	- 아동 이용자: 스티커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시행, 스토리텔러에게 편지쓰기: 투표함을 통한 피드백 - 일반 이용자: 전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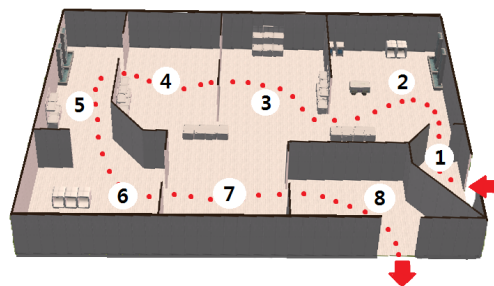
4.3 적용 전시프로그램 세부내용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아동들은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시프로그램은 주 이용자에게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부의 각 주제이자 대통령의 업무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를 참고하고(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2015), 해외 대통령기록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행정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 또한 전시에 반영한다. 또한 대통령의 역할을 하루 일정으로 간략화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이용자의 일상과 비교할 수 있게 하여 대통령에 대한 친숙함을 유도한다. 이용자는 ‘비서관’이라는 스토리텔러를 따라 다니며 전시를 관람하며, 관람객 스스로는 ‘비서관’이 되어본다. 관람객의 스토리텔러화는 관람객이 전시에 보다 깊게 몰입하고 크게 흥미를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시의 소주제별로 적용된 체험 요소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하루: 비서관의 이야기’의 도입부

는 ‘대통령의 하루 속으로’, 전시부는 ‘똑똑똑 아침입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오늘 약속은 누구?’, ‘대통령님 여기 봐주세요!’, ‘대통령 어깨는 무거워요’, ‘대통령의 하루 일기’로 구성되며, 마지막 결말부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로 8개의 주제로 구성한다.

〈그림 5〉는 전시 도면과 스토리를 따라 유도된 관람객 동선을 나타낸 것이며,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적용 사례의 세부 내용은 〈표 11〉과 같다.



〈그림 5〉 전시 도면 및 유도동선

- ① 대통령의 하루 속으로
- ② 똑똑똑 아침입니다
- ③ 대통령의 업무는?

〈표 11〉 적용 전시프로그램 세부내용

스토리	소주제	전시 내용	체험요소	기대 효과
도입부	대통령의 하루 속으로	- 비서관의 인사 - 스토리텔링 전시 소개 영상	- 비서관 명찰 - 전시 소개 영상시청	- 영상의 시청각적 자극을 통한 호기심 유발
중간부	똑똑똑 아침입니다	- 대통령 관저 재현 - 대통령의 조식 - 대통령 일정 및 보고서	- 식단 모형 체험 - 기록물 OX퀴즈	- 대통령의 의식주를 통한 건강한 식단 및 부지런한 생활에 대한 학습 효과
	대통령의 업무는?	- 대통령의 집무실 재현 - 업무 관련 종이기록물 - 지문결재기: 인터랙티브 연출	- 기록물 분리 체험 - 결재하기 체험	-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에 기록물에 대한 간접적 교육 효과 - 대통령의 업무에 관한 이해도 향상
	오늘 약속은 어디? 누구?	- 대통령의 각국 대통령 등의 정상 만남 현장: 키오스크·포토존	- 키오스크 체험 - 포토존 체험	- 각국 정상들에 관한 지식습득
	대통령님 여기 봐주세요!	- 기자회견장 재현 - 대통령별 주요 사건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	- 블루스크린 체험 - 기자회견장 체험	- 언론의 정의와 역할 학습 - 정치의 중요성 학습
	대통령 어깨는 무거워요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으로서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통령의 모습 재현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정	- 비서관 역할놀이 - 기록물 이관 체험	- 리더십 향상 - 의견 공유를 통한 사고력 확장 - 비서관의 역할 및 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대통령의 하루 일기	- 대통령의 서재 재현 - 인간으로의 대통령 조명 - 대통령의 개인 기록 및 자서전	- 사진전 관람	- 대통령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형성 - 자아성찰 기능
결말부	오늘 하루 어땠어요?	- 전시 관람 소감 적기 - 스토리텔러의 마무리 멘트	- 투표 체험 - 편지 쓰기	- 국민 투표 학습 - 전시 회상을 통한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쇄신

- ④ 오늘 약속은 누구?
- ⑤ 대통령님 여기 봐주세요!
- ⑥ 대통령 어깨는 무거워요
- ⑦ 대통령의 하루 일기
- ⑧ 오늘 하루 어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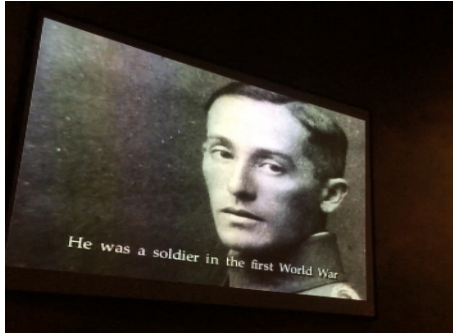
4.3.1 전시 도입부

1) 대통령의 하루 속으로

스토리텔링 전시 도입부에서는 전시에 관한 영상으로 전시를 시작한다.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시를 관람하는데 있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도록 한

다. 〈그림 6〉은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다니엘 이야기’의 전시 도입부로, 어린이의 전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상을 통해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영상을 관람 후 관람객은 〈그림 7〉과 같은 ‘비서관’의 명찰을 지급받는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ID카드’와 같이 제공된 명찰을 통해 이용자는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각 공간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스토리텔러 ‘비서관’을 실제 역할 인물로 설정하거나 또는 오디오 활용 및 디지털로 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시 목적을 알린다.



〈그림 6〉 스토리텔링 전시 도입부 영상 예시

친구들 안녕?
 저는 오늘 여러분을 가르치게 될 대표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은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친구?
 (손을 들도록 유도)
 대통령은 언제 일어나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하죠?
 오늘 하루 비서관이 되어
 대통령과 친해져보도록 해요!

〈그림 7〉 비서관 명찰 예시

4.3.2 전시 중간부

1) 새벽 5시: “똑똑똑 아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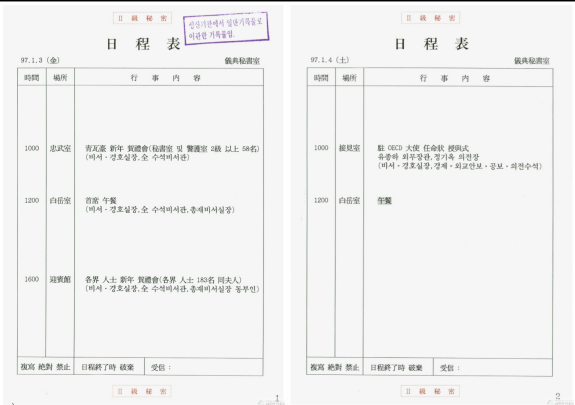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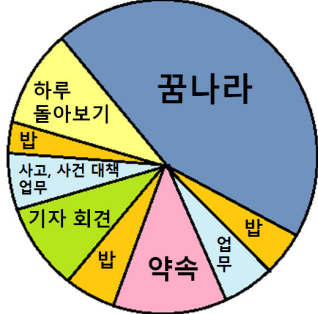
중간부의 시작 부분으로 대통령의 침구, 옷장 등 대통령의 관저를 재현한 공간에서 대통령의 하루 일과의 시작을 보여준다. 〈그림 8〉과 같이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의 실제 기록물 전시와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하루 일과표를 〈그림 9〉의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기록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플립북처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설을 첨부한 기록의 재구성도 계속 이

뤄질 수 있다.

스토리텔러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전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대답 유도 후) 대통령의 하루는 여러분이 쿵쿨 잘 시간인 새벽 5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대표로 일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겠죠?
 우리 친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골고루 먹어야겠죠? 편식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표 7〉 기록물 재구성 예시

AS-IS	TO-BE
	
<p>〈그림 8〉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p>	<p>〈그림 9〉 재구성 기록물 예시</p>

전시공간의 다른 한 면에는 대통령의 식단과 대통령이 사용했던 식기류 등의 식사 관련 행정박물을 전시한다. 실제 기록물과 함께 모형을 통하여 체험적 형태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 요소는 다수의 미국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그림 10〉처럼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메뉴를 식단과 함께 모형으로 재현하거나, 식사 시 사용하는 식기의 배치 구조를 테이블에 전시하여 대통령의 식탁에 얹아 물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OX퀴즈를 통해 기록에 관한 에듀테인먼트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관심을 환기시킨다.

2) 아침 9시: 대통령의 업무는?

청와대의 집무실을 재현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재현하고 있는 청와대의 집무실은 책상 정도에 그쳐 단편적인 체험만 가능하므로 〈그림 12〉의 지미카터 대통령기록관과 같이 진반적이고 구체적인 집무실의 모습을 재현할 필



〈그림 10〉 김대중 대통령 식사 모형 예시

Q.대통령의 식단표는 기록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림 11〉 터치스크린 예시



〈그림 12〉 대통령 집무실 예시



〈그림 13〉 지문 결재 예시

요가 있다.

책상에는 대통령의 시계, 볼펜, 도장 등의 행정박물과 공무원증, 정책 브리핑 관련 자료, 부처별 업무 보고서의 행정기록, 대통령 별 사진을 놓아두고 관람객이 스스로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기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산재된 기록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기록연구사의 존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는 〈그림 13〉처럼 지문결재기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스토리텔러는 다음과 같이 지문결재기 체험을 유도한다.

자 ~ 그림 다음은 책상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은 오늘 하루 어린이 비서관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볼 것처럼 아주 많은 일들을 한답니다. 그런 일들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유도)
맞아요~ 우리 비서관들을 통해 기록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장이나 알림장을 쓰죠?
오른쪽에 있는 불빛이 들어오는 검정 상자는 무엇인지 맞춰볼까요? (참여 유도)
우리가 숙제를 하면 선생님께 도장을 맞는 것처럼 대통령을 도와 일을 하는 어른들이 대통령에게 확인을 받으러 오거든요~ 이럴테면 '참 잘했습니다'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지문결재기'라고 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 번 결재를 해볼까요?

3) 오후 1시: 오늘 약속은 어디?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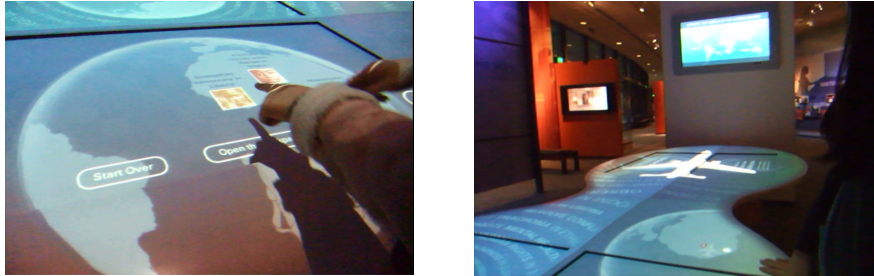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이 만났던 각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의 사진 및 동영상 기록을 키오스크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 인터랙티브 연출을 통해 관람객들은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대통령 및 수상의 패넬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포토존을 형성한다. 이외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해외 정상들의 인사말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시 연출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4〉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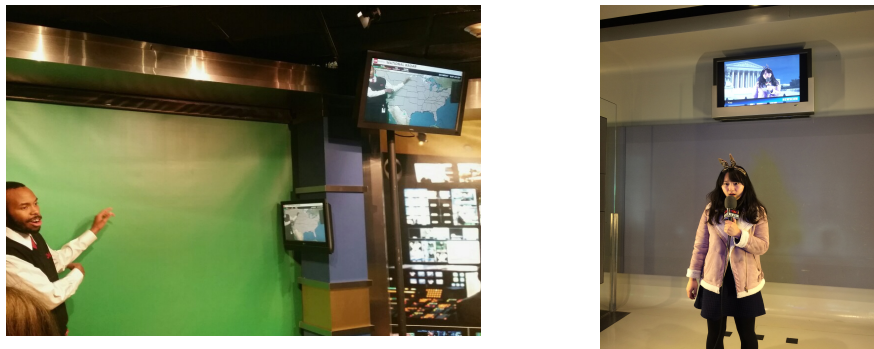
여기를 보세요! (키오스크에 가상의 스토리텔러의 모습이 등장한다)
대통령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만날답니다.
우리 대통령들은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 따라가봐요!

4) 오후 5시: 대통령님 여기 봐주세요!

블루스크린을 활용하여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을 〈그림 15〉와 같이 소규모로 재현한다. 스토리텔러는 어린이들이 블루스크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블루스크



〈그림 14〉 키오스크 활용 예시



〈그림 15〉 블루스크린 사용 예시

린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스크린이나 LCD 모니터로 기자회견장을 재현한다.

비서관 여러분! 여기는 기자회견장이예요. 이 파란 배경은 여러 장소로 변하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비서관 중에 누구 한명 카메라 앞에 서볼래요? (능동적 참여 유도) 친구들은 TV 화면을 봐주세요! 어떤 모습이 TV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해봐요.

관람객은 전시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화면으로 가상의 기자회견장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아동기의 아동 관람객 층은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화면에

자신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높이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 한편 벽면에는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언론자료를 대통령별로 전시한다.

5) 저녁 9시: 대통령 어깨는 무거워요

사건사고,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장으로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대통령의 발언과 연설기록을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영상 시청 후에는 가벼운 역할놀이를 통하여 스토리텔러가 알려주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관람객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예요. 우리나라에 중대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답니다. 대통령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볼까요?

한편으로는 시대별 변천을 겪은 대통령기록물을 전시하여 기록물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알게 한다. 또한 대통령과 기타 부서가 생산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관점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관 과정을 볼 수 있게 한다. 실제 대통령기록관에서 사용하는 파일 박스 등도 전시한다. <그림 16>은 아이들에게 기록관의 역할을 인지하기 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미국 워싱턴의 NARA 1의 체험 장소이다.

저기에 보이는 박스들은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박스들이예요~ 저 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들어있는 우리 한번 찾아봐요!

6) 저녁 12시: 대통령의 하루 일기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조명하는 공간이다. 대통령의 서재를 재현하고 대통령의 애장서나 가족과 함께한 개인 기록 및 사진, 영상물 등을 전시한다. <그림 17>은 저녁 12시: 대통령의 하루 일기의 주제에서 전시될 수 있는 윤보선 대통령의 가족관련 개인기록이다.

대통령은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떠올려보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혼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지낼까요? 여러분은 혼자일 때 주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며 이곳을 천천히 둘러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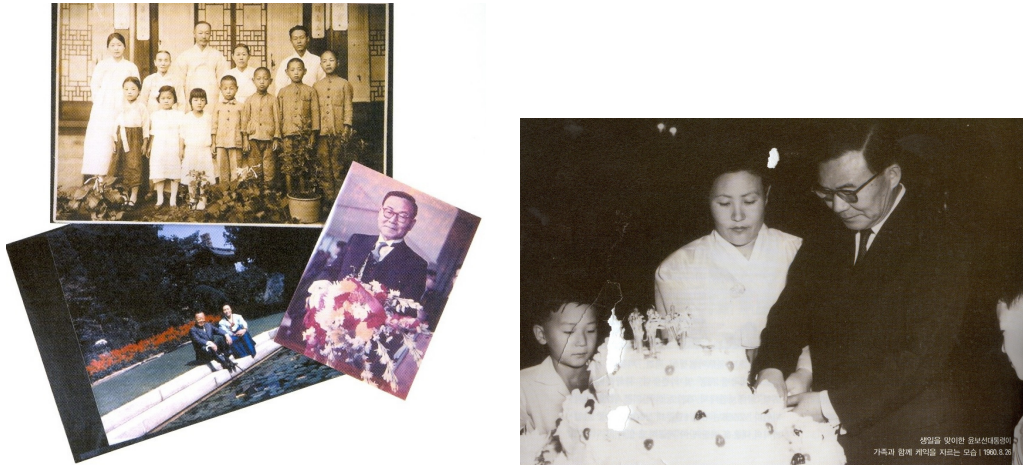
4.3.3 전시 결말부

1)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전시의 결말부 단계는 '대통령의 하루'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전시 평가가 이루어진다. 스토리텔러는 관람객들의 피드백



<그림 16> NARA 1: 기록물 파일 박스 예시



〈그림 17〉 윤보선 대통령의 가족관련 개인기록(대통령기록관, 2008)



〈그림 18〉 전시 만족도 투표함 예시

을 유도하여 마치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투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림 18〉의 전시 만족도 투표함을 재현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스토리텔러에게 보내는 편지함을, 대통령에게 국민으로서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으로의 투표함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어린이 이용자에게 대통령 선출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은 할 일도 많고 만들어내는 기록도 많아요~
중요한 기록은 상자에 넣고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때요?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도 오래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
으로 남겨보아요!
오늘 하루 비서관으로 수고 많았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대통령의 하루’에 대한 평가 피드백은 연령

이 낮은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전시의 만족도'를, 어린이의 보호자나 일반 이용자에게는 스토리텔링 전시에서의 '스토리텔러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별도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질문을 위하여 전시 만족도의 문항지는 투표용지의 형태로 제작하고, 전시부 각 섹션마다 사진과 함께 재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한다. 작성한 문항지는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이용자 및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평가 피드백은, 전시를 관람하는데 있어 스토리텔러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설정한다. 아이들이 전시를 관람하는데 있어 스토리텔러의 존재 여부가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기존의 평면적 전시와 비교하여 몰입 효과의 유무를 확인한다.

전시의 결말부 단계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의사표현으로서의 투표 기능을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향후 전시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5. 결론 및 제언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중에서도 국가의 수장에 관한 기록으로, 특히 우리 사회상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보여주기에도 교육효과도 매우 높은 기록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기록관을 홍보할 만한 기획전시 프로그램이 폭넓게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시 등의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자 유입을 유도한다면, 해당기관의 존재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들에게, 특히 아동들에게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전시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전시는 대통령의 삶을 간략화한 '대통령의 하루'를 주제로 하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 지 등 아이들이 가질만한 궁금증을 스토리텔러 비서관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전시공간은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도입부-전시부-결말부 총 3단계의 이야기를 거친다. 관람객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전시를 관람하게 되며, 전시부 체험요소를 통해 기록물과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결말부에서 전시주제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시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적이다.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편이며,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부각된 대통령기록관 역시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이다(이숙경, 2007).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프로그램의 도입은 기록관의 대국민홍보에 일조할 것이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주요 관람객인 유아 및 초등학교들의 단체 방문을 유도하는데 효율적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의 교육적 효과를 통하여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전시에 활용된 21세기 디지

털 기술과 체험 요소에 흥미를 느낀 어린 이용자들은 기록관의 현재적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이용 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기관의 향후 기록물 수집정책이나 전시 기획에 도움이 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견학이나 전시 관람 후에 방문자들의 소감을 받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시의 마지막 결말부에서 받는 체험 소감은 관람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알 수 있게 해주며, 향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스토리텔링 전시 사례를 통해 타 기록관의 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와 서비스 중

심으로 바뀌어가는 기록관 패러다임의 시대적 상황에도 적합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기록물 활용의 시야를 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아카이브의 전시 기획에도 색다른 선행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리텔링 전시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관람객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프로그램을 직접 개최함으로써 기록관의 전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기록관 홍보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나희 (2008).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에 관한 연구: 생활사 주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 김연주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건국 60주년 기념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9(2), 103-131.
- 김연희 (2012).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 미술관학과.
- 김영도, 한태우 (2009).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전시 연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3(3), 46-53.
- 김용승, 고유정 (2009). 어린이박물관 전시매체 유형별 관람객의 행동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9-53.
- 김진숙 (2007). 아카이브 전시 환경 표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대통령기록관 (2008). 대통령기록관 소장 역대대통령 주요 기록물. 성남: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2007). 의전수석비서관실: 일정표(1997. 1. 3 ~ 1997. 12. 31). 성남: 대통령기록관.
- 롤프 옌센 (2000). 드림 소사이어티. 서정환 옮김. 리드리드출판.
- 신정인 (2011). [MBN 시청률 1위의 위엄] '청와대 밥상'의 비밀을 말하다. MK뉴스, 검색일자: 2014.

8.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21719>
- 양유정 (2006). 박물관 성장기반으로서의 스토리텔링구조 연구. *박물관학보*, 10 · 11, 369-400.
-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성남: 김영사.
- 이선정 (200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연구: 미국대통령기록관의 홍보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숙경 (2007).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따른 기록물 활용방안: 전시·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이주형 (2001). *전시 시나리오의 구조와 공간연출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 이혜원 (2007).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 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조민지 (2006).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 진수정 (2011). *스토리텔링기법을 통한 대학기록관의 전시개발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NARA (2013). *FY 2013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Retrieved August 15, 2015, from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2013/>

[웹사이트]

- 국립민속박물관. 검색일자: 2014. 8. 12. <http://www.nfm.go.kr/index.nfm/>
-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검색일자: 2014. 8. 13. <http://www.kidsnfm.go.kr/>
- 대통령기록관. 검색일자: 2014. 8. 12. <http://www.pa.go.kr/>
-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Retrieved August 15, 2015, from <http://www.reagan.utexas.edu/>
-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Retrieved August 16, 2015, from <http://www.fdrlibrary.marist.edu/>
- 청와대어린이홈페이지. 검색일자: 2015. 8. 14. <http://children.president.go.kr/>
- 카터 대통령기록관. Retrieved August 15, 2015, from <http://www.jimmycarterlibrary.gov/>
-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Retrieved August 15, 2015, from <http://www.jfklibrary.org/>
- 포드 대통령기록관. Retrieved August 16, 2015, from <http://www.fordlibrarymuseum.gov/>
- Holocaust Museum. Retrieved January 23, 2015, from <http://www.ushmm.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in, Soo-Jung (2011). A study on exhibition development of University Archives by storytelling

- techniq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Jo, Min-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6(2), 157-184.
- Keem, Jin-Suk (2007). A Study of standards for exhibition environment of arch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Kim, Na-Hee (2008). A Study on Development in Children-targeted Exhibition Model of Storytelling Technique: Centering on Theme of Life Cyc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im, Yeon-Hee (2012). A Study on planning museum exhibition by applying storytelling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Yeon-Ju (2009). Archives and Museum Exhibitions Compared: with the Emphasis on the Exhibitions Held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9(2), 103-131.
- Kim, Yong-Seung & Ko, Yu-Jung (2009). A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Visitors at a Exhibition Method Types in Children's museum.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fall workshop, 49-53.
- Kim, Young-Do & Han, Tae-Woo (2009). The Exhibition Producing Based on the Storytelling Concept.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3(3), 46-53.
- Lee, Hye-Won (2007). A study of method to activate exhibition programme in arch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ook-Kyung (2007). A plan for utilizing archival materials in presidential arch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Seoul.
- Lee, Sun-Jung (2007). A study on opera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Focused on analysing the US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R se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Seoul.
- Presidential Archives (2007). The Chief Protocol Office: Schedule(1997. 1. 3 ~ 1997. 12. 31).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 Presidential Archives (2008). Presidential Archives's main records of former presidents.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 Rhee, Bo-A (2000). The introduction to Museology. Seoul: Gimmyoungsa.
- Sin, Jeong-In (2011). Tell about Food table of Blue-House. MK news. Retrieved August, 11, 2014,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21719>
- Yang, Yoo-Jeong (2006). A Study on the Storytelling Structure for Museum Management -

Focused o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useum Studies*, 10 · 11, 369-400.

Yi, Joo-Hyoung (2001). A study on the structure of exhibition scenario and the programming of space prod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